

각위

2020년 7월 29일
SBI레мит 주식회사

SBI레мит, 국제송금 누적 송금액 1조엔 돌파 !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국제송금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SBI레мит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https://www.remit.co.jp>, 이하 「당사」)는 당사 고객 성원에 힘입어 국제송금 누적 취급액(엔화 환산액)이 1조엔을 돌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재류외국인을 대상으로 SBI그룹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4월 시행된 자금결제법에 따른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12월 국제송금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개업 시 208만명 정도였던 재류외국인수는 작년 말 약 293만명(※1)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취업 목적 재류외국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나 인력 부족 등을 배경으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강화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신 금융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저렴한 수수료가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사이트 다국어 대응 강화(12개국어), 언어별 문의 접수(메일·전화·SNS)를 비롯한 CS센터 확충 등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SBI그룹이 추진하는 지역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시마네은행을 시작으로 후쿠시마은행, 치쿠호은행, 미치노쿠은행과 업무제휴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노동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니즈에 대응하면서 편리성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 65만명 중 90% 이상이 외국 국적의 고객이며 일본 내 금융기관 모국송금 취급액 점유율(※2)은 약 34%에 달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 점유율은 41%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 나19의 영향으로 신규 입국자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출입국 재개 시 입국 제한 조치 완화를 비즈니스, 유학생, 관광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재류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업 10주년인 올해도, 새로운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기능 확충을 비롯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1 법무성: 2019년 말 현재 재류외국인 수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03.html

※2 일본은행 통계데이터(2019년 10월~12월 통계), 및 당사 실적 수치를 참고하여 산출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